

인도네시아 식품가격 급등...정부개입 소용없어

□ 주요내용

-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은 금식을 통해 자선을 하는 기간이지만,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으로 인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저녁 만찬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하는 만큼 양질의 식품 소비도 증가해 물가가 급등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고기, 설탕, 붉은 양파(bawang merah) 등 일부 품목을 수입해서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한 모양새다. 소비자와 상인들은 당국의 노력이 소용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정부 당국은 소고기 27,400톤, 설탕 381,000톤, 붉은양파 2,500톤을 수입하기로 했고, 쌀 가격도 잡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소고기 가격은 현재 kg당 110,000~125,000루피아 범위를 80,000루피아로, 붉은양파 가격은 kg당 40,000루피아에서 25,000루피아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하지만 동부자카르타 빠룸나스 끌렌더르 소매시장에서 채소가게를 하는 이삭 씨는 브레베스에서 생산된 붉은 양파를 동부자카르타 꼬라맛자띠 도매시장에서 kg당 35,000루피아에 사서 자신의 가게에서 40,000루피아에 판다고 했다. 이삭 씨는 중부자바 브레베스에서 자카르타까지 오는 데도 많은 유통망을 거치는 만큼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가격 인하 계획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끌렌더르 시장 정육점 주인 헨디 마올라나는 현행 유통체계에서 소고기 가격을 kg당 80,000루피아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짝궁 지역에 있는 도축장에서 소고기를 kg당 108,000루피아 구입해 자신의 가게에서 110,000~120,000루피아에 판다며, 복잡한 유통망과 공급 부족이 겹쳐서 가격이 높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 에니 스리 하르따띠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대표는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에니 대표는 "현재 생우 가격이 kg당 40,000~45,000루피아이고, 소고기로 판매하는 비율은 소 무게의 45%뿐이다"

라며 "따라서 소고기 공급 가격은 kg당 100,000~112,000루피아가 되므로, 시장가격 120,000루피아는 정상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Indef는 소 생산가격의 70%가 사료비용인 만큼 소를 키우는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해야 소고기 값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점

-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영양가가 풍부한 식재료들의 소비가 대폭 증가하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외식소비 또한 증가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주요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유통 구조 및 물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가격 상승이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Daily Indonesia